보성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 실시

'초·중학교-교육지원청-공공도서관' 협력적 연계 운영
리딩푸드·리딩아트·리딩보드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여

보성교육지원청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의 일환으로 3월부터 지금까지 초·중학교의 희망을 받아 '학교로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총 142회 운영하였다.

'학교로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은 보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학교-교육지원청-공공도서관'이 협력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리딩푸드, 리딩아트, 리딩보드 등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1월 관내 교사, 사서교사, 공공도서관 사서, 교육지원청 순회사서 등이 함께 모여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하여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특히, 지구 생태계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시급함에 따라 '생태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어 목록을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함께 친환경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였다. 또, 운영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그림책 교육·리딩푸드·리딩보드 놀이 지도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지역민 2명을 강사로 위촉하였다.

책놀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과 그림의 조화 속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해보는 리딩아트, 책을 읽고 주제와 연관된 요리 활동을 연계하는 리딩푸드,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환경교육용 보드게임을 해보는 리딩보드를 체험·실습해봄으로써 책과 친해지고, 깊이 있는 책 읽기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책놀이 프로그램은 학년 수준 및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을 변형 및 재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학급당 2시간씩 최소 2~4회기까지 찾아가 깊이 있는 독서인문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희망한 학급의 선생님들은 책놀이를 한 학기 한 책 읽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매시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어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딩푸드에 참여한 보성초 박00학생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 엄마가 항상 플라스틱 쓰레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검정 토끼를 읽고, 빠네파스타를 만들면서 빵이 그릇처럼 사용될 수 있다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다음 책놀이가 매우 기대된다고 하였다.

전희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정도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인문교육이야말로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의 책 읽는 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지금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곡성외국어체험센터, 가족 영어 캠프 실시

곡성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곡성 3,4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영어 캠프를 열었다. 학생들은 영어 동화책으로 이야기와 함께 영어 표현을 익히고, 학부모는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교육지원청 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15일부터 3일간 관내 3,4학년 초등학생 13가족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구성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추억도 만들고 학습과 자녀교육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엄마, 아빠와 함께 명찰을 만들면서 캠프 개요에 대한 안내로 함께 시작을 하였고, 곧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스토리룸으로, 학부모들은 내국인 강사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영어동화책을 한 장 한 장 펼쳐가며 녹색 괴물의 신체 부위, 색깔, 꾸며주는 말 등을 놀이와 함께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학부모 교실에서는 '내가 만약 열 살, 열 한 살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주제로 자녀들과 학부모님들의 교육 환경을 비교해보고,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와 고민을 나누었다. 또한,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 동화책에 대해 가정에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붙일 캐릭터를 만들고, 자녀들과 즐거운 놀이 활동으로 이어갈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3일간의 캠프 동안 한 권의 동화책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이 곡성외국어체험센터와 학생들의 가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수 교육장은 "자녀 교육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지상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자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캠프는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쉽고 간단한 영어책을 활용하여 영어를 친숙하게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학습이 가정에서도 이어지도록 하는게 큰 특징이다. 학습의 조력자로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경험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공공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

이옥수·김남중 작가와의 만남 강연회 성료

장성공공도서관은 지난 10월 27일, 11월 11일 두차례에 걸쳐'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작가와의 만남 강연은 그 동안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작가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만남으로써 학생들이 책과 한 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0월 27일 이옥수 작가와의 만남 강연은 문향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이옥수 작가의 저서'나는 k다'를 주제도서로 책 속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문학을 통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연하였다.

11월 11일 김남중 작가와의 만남 강연은 장성남중학교와 장성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김남중 작가의 저서'나는 바람이다'를 주제도서로 8년에 걸친 세계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필과정을 소개하며 문학작품의 의미와 창작과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강연 전 읽은 책의 작가 강연을 직접 듣게 되어 책을 통해 작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고 글쓰기와 책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장성=기동취재본부

영암금정초중, 행복多감 대봉감따기 체험·봉사활동 실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특색프로그램 활동

영암금정초·영암금정중학교는 지난 14일 금정초·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多감 대봉감따기 체험활동 실시했다.

금정초·영암금정중학교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비젼을 토대로 작은학교 특색을 살린 마을학교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대봉감을 알고 우리 고장 사랑하기의 마음을 느끼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배려의 공동체 의식까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4학년 임00 학생은 "집에서 감따기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친구들 언니 오빠들과 함께 감따기 활동을 해보니 재밌어서 또 하고 싶다" 고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